

한은, 기준금리 연 3.5% 동결...경기 불안 초점

5연속 동결...가계부채·환율 등 인상요인에도 중·미 리스크 우려 성장률 1.4% 유지...중국 부동산발 불확실성에 내년 성장률 낮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하기로 했다. 이로써 한은은 다섯 번 연속 기준금리를 묶어 두기로 한 것인데, 최근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고 원·달러 환율도 다시 오르는 등 인상 요인이 있지만, 최근 중국 부동산발(發) 리스크(위험)까지 겹쳐 경기가 더 불안해진 만큼 인상으로 소비·투자를 위축시키기보다 일단 동결한 뒤 상황을 지켜보자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특히 25일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의 잭슨 힐의 연설이 예정돼, 한은 입장에서는 통화정책의 가장 큰 변수인 미국의 추가 긴축 의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24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이날 오전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기준금리(연 3.50%)를 조정 없이 동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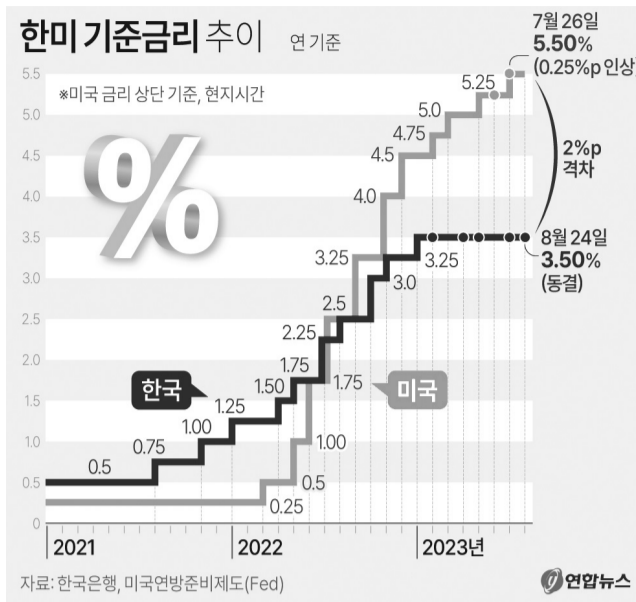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결문에서 동결 배

경에 대해 "물가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8월 이후 다시 3% 내외로 높아지는 등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주요국의 통화정책, 가계부채 흐름 등도 유의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고 밝혔다.

추가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둔화 흐름, 금융안정 리스크와 성장의 하방 위험, 금리 인상의 파급효과,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가계부채 증가 추이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라며 계속 여지를 뒀다.

금통위는 국내 경기와 관련해 "앞으로 소비가 완만하게 회복되고 수출 부진도 완화되면서 성장세가 점차 개선될 것"이라며 "올해 성장률은 1.4%로 5월 전망치에 부합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소비자물가에 대해서는 "상승률이 8월부터 다시



높아져 연말까지 3% 내외에서 등락할 것"이라며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월 전망치(3.5%)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은도 이날 발표한 수정 경제 전망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4%, 3.5%로 유지했다.

다만 내년 성장률의 경우 중국 경제 불확실성 등을 반영해 기존 2.3%에서 2.2%로 0.1%포인트 낮췄다.

지난 2021년 8월 시작된 금리인상 기조는 사실상 지난 2월 동결로 깨졌고, 3.5% 기준금리가 이날까지 약 7개월째 유지되고 있다.

이날 한은이 다시 동결을 결정한 주요 배경은 무엇보다 불안한 경기 상황이다.

2분기 경제성장률(전 분기 대비 0.6%)은 1분기(0.3%)보다 높지만, 세부적으로는 민간소비(-0.1%)를 비롯해 수출·수입, 투자, 정부소비 등 모든 부문이 뒷걸음쳤다.

다만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줄어 순수출(수출-수입)만 늘면서 수치상으로는 겨우 역(-)성장을 피했다.

더구나 최근 중국 부동산개발업체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 등으로 중국 리스크(위험)가 커지고 미국의 추가 긴축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정부가 한은이 기대하는 하반기 경기 반등, 이른바 '상저하고' 실현이 더 불투명해졌다.

그렇다고 가라앉는 경기에 초점을 맞춰 한은이 기준금리를 서둘러 낮추기에는 가계부채·환율·물가 등이 걱정거리다.

우선 기준금리 동결 기조 속에서 가계부채가 빠르게 다시 불어나고 있으며 금리 인하로 가름을 부을 가능성이 있다. 작년 4분기와 올해 1분기 줄었던 가계신용(빚) 잔액(1862조8000억원)은 지난 2분기 9조5000억원 증가했다.

미국(5.25-5.50%)과의 기준금리 역전 폭이 사상 초유의 2.0%포인트까지 커진 가운데 최근 환율도 9개월 만에 1340원대에 올라섰다. 금통위가 이날 기준금리를 다시 동결하면서 미국과 격차는 2.00%포인트로 유지됐으나, 미국의 추가 인상으로 차이가 더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연합뉴스

통장 스쳐가는 월급...고물가에 실직소득 최대폭 감소

2분기 월평균 소득 479만원...전년비 3.9% ↓

고물가 등 영향으로 올해 2분기 가구 실질소득이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6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로 이자비용 부담도 늘면서 가구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가처분소득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폭으로 감소했다.

가처분 소득 감소는 소비지출 둔화로 이어지면서 서민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모양새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가계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79만3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0.8% 줄었다.

이는 2009년 3분기 1.3% 줄어든 뒤로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다. 같은 분기 기준으로 비교하면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6년 이후 최대폭 감

소다. 가구소득은 2021년 2분기 전년 동기 대비 0.7% 줄어든 뒤 7분기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올해 2분기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지난해 지급된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전금 효과가 사라진 영향이 크다는 것이 통계청의 분석이다.

여기에 고물가 영향까지 겹치면서 실질소득은 더 큰 폭으로 감소했다. 올해 2분기 가구 실질소득은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3.9% 줄었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6년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소득을 유형별로 보면 근로소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 늘었다. 전 분기(8.6%)보다 증가 폭은 줄었지만, 고용 상황 호조세로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유지했다.

사업소득은 원재료값 인상, 이자 비용 증가 등 영향으로 0.1%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난해 2분기 높은 증가율(14.9%)에 따른 기저효과 영향도 있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올해 2분기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은 365만2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4.1% 늘었다. 소비지출은 269만1000원으로 2.7% 늘었고 외식비와 공공요금 물가 상승 등 영향으로 음식·숙박(6.0%), 주거·수도·광열(7.4%) 등의 지출도 증가했다.

비소비지출은 96만2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8.3% 증가했다.

고금리 영향으로 이자 비용이 42.4% 늘면서 1분기(42.8%)에 이어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자동차 소비 증가로 취·등록세 지출이 늘면서 비경상 조세도 95.0% 늘었다. /김민석 기자 mskim@



클래식, 미디어작품이 되다 최근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광주실감콘텐츠큐브(GCC) MX홀(실감융복합스튜디오)에서 열린 미디어아트 클래식 융합 공연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클래식, 미디어작품이 되다'를 주제로 피아졸라와 드보르작의 곡을 연주함과 동시에 몰입형 미디어아트로 승화시킨 공연을 선보였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제공>

광주은행, 전남도와 자원봉사자 보상제도 협약

온(溫)마음나눔카드 발급

여행 등 문화활동비 사용 가능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24일 전남도청에서 '전남자원봉사 온(溫)마음나눔카드'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남도가 자원봉사활동 장려와 자원봉사자 실질 보상제도를 마련하고자 추진 중인 지원사업의 일환이다.

지원 대상은 '1365포털'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중 2022년 기준 우수자원봉사자(100시간 이상)로, 지원금액은 봉사 시간대별로 8만~2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광주은행 온마음나눔카는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전남도 내 문화·공헌관람, 도서관, 학원수강, 여행 등 문화활동비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광주은행 영업점과 광주은행 모바일웹뱅킹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카드는 2024년 말까지 사용 가능하다. /김민석 기자 mskim@

롯데아울렛 광주수완점

내일 '개의 날' 기념 이벤트

롯데아울렛 광주수완점은 오는 26일 '세계 개의 날' 기념해 반려견을 위한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광주수완점은 오후 3시부터 1시간 동안 수완호수 공원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반려견과 함께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과 애견 놀이기구 어질러티, 애견 풀장을 마련해 반려견들을 위한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제안하면 거절하고!

발견하면 신고하고!

한사람의 보험비로 전국민의 경제부담 줄

보험사기 ZERO

-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적합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